

한달새 2억 올라도 품귀… 새학년 앞두고 ‘전세의 고액월세화’

Q 르포 | 강북 대표 학군지 ‘중계동’ 가보니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월세 전환이 크게 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세 물건 감소가 겹치면서 월세도 올랐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31.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24년 12월(119.3)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1.9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10만원 이상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 서울 외곽까지 번진 고액 월세

서울 전역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는 가운데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도 고액 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 외곽 주요 자치구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전용 149㎡는 보증금 1억원, 월세 410만원에 거래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두산아파트 114㎡는 최근 보증금 5000만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47만원
학군밀집 중계 ‘강북 소치동’ 불려
84㎡ 월세 5건 중 4건 200만원 넘겨
“세입자 주거비 부담 고착화 우려”

원, 월세 27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어섰다. 지난달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으로, 지난해 1월(134만3000원)보다 13만원 이상 올랐다.

◆ 중계동, 전세→월세 전환 ↑

지난 6일 찾아가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중계동은 강북 대표 학군지로 ‘강북의 소치동’으로 불린다. 을지초등학교를 비롯해 청암중·고교와 청암예술학교가 위치해 있고, 은행사거리 일대에는 학원이 밀집해 있다. 특히 청구3차와 건영3차 아파트는 이 동네 대장 단지다. 샛길을 이용하면 학교와 학원가가 지 겹쳐서 5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 84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건영3차 아파트.

/성채리 인턴기자

㎡는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28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달 체결된 월세 계약 5건 가운데 4건이 월세 200만원을 넘겼다. 전세가는 7억~8억원선이다. 9월까지 4억~5억원대 거래도 있었지만 10월 이후에는 최소 6억575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바로 뒤편의 건영3차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달 전용 84㎡ 규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60만원으로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10월 같은 월세 조건에서 보증금이 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전세가 6억원대였는데 요즘은 싸게 나와도 7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학군지 특성상 세입자 거주 기간이 길어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초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반 수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전학생이 많다”고 귀띔했다.

학군지 전·월세 시장은 우수한 교육 환경을 이유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가격 하락 폭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세 물건이 잠기면 빠지지

않는 수요가 월세로 이동한다. 특히 3월 학기 시작을 앞둔 겨울방학은 극성수기로, 물건 품귀 현상은 뚜렷하다.

◆ 전세 물건 ‘잠김’ 이어질 듯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거래가 늘며 월세 가격도 함께 뛰는 흐름이다. 정부의 대출·거래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월세 계약 갱신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세입자는 신규 계약보다 부담이 적은 계약 갱신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주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른 지역 집값이 더 올라 집을 팔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오른 집값 탓에 집주인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높이려는 심리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전세난과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세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수요층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향후 중·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신중론’

한국 vs 독일 사실상 양자대결

韓, 개별기업 차원 경쟁력 확보 어려워
獨, 정부차원 안보·산업 투자전략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두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 구도가 단순한 무기 성능이나 가격 비교를 넘어 외교·안보와 산업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방산 수요국들은 방산 공장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인프라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철충교역과 산업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간 산업·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패키지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 중이다. 유지·보

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한 가운데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후보군인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경쟁 구도는 사실상 한국과 독일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다만 수주 환경은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잠수함 공급과 함께 현지 생산과 대규모 투자, 기술 이전을 포괄하는 방식이 사실상 기본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제안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외교·안보 카드와 산업 투자를 결합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자국 해군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일감 제공과 동시에 나토(NATO) 동맹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캐나다에 완제

품을 건네는 ‘갭필러(Gap Filler)’ 방식도 파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TKMS는 현재 노르웨이와 2500톤급 스텔스 디젤잠수함 212CD를 공동 개발 중인데 2028년 독일이 도입할 예정인 3번째 잠수함을 캐나다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한한 줄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관련 현지 공장 설립 의향을 타진한바 있다. 이는 방산을 넘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도가 수주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종합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부산 남구 감만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투자심리 회복

산업부, 작년 FDI 신고액 4.3% 증가
반도체 등 중심 미국발 투자 87% ↑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36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금이 실제로 국내에 유입된 도착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들어 투자심리가 뚜렷하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FDI 신고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자금 도착액도 179.5억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FDI는 2022년 304.4억달러, 2023년 327.1억달러, 2024년 345.7억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착 기준으로는 2024년 일시적 감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FDI가 전년 대비 14.6% 감소하는 등 부진을 겪었음에도,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를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하반기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는 평가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미국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97.7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산업부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첨단 제조 관련 투자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신고액은 285.9억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74.6억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지만, 3분기까지 이어졌던 급감 흐름에서 벗어나 4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산업부는 M&A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사업 환경에 대한 신뢰 회복이 4분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죽전점,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이뤄낸 열매”

>> 1면 ‘정용진, 가장 빠르고…’서 계속

정 회장 역시 체류형 시설을 두루 살피며 기존 매장 및 경쟁 점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점점 더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새로움을 갈망하는 1등 고객’의 높아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새

로운 도전이었다”며 “두려움 없이 혁신하고 성과를 내준 여기 계신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죽전점은 끊임없이 현장의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뤄낸 열매”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 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6년 한해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다.

고객의 일상을 경험하고 시선을 따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는 것 또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일은 경영 리스크를 줄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 회장은 “우리의 구상대로 2026년 힘껏 날아오르려면 쉼 없이 날갯짓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륙 장소는 당연히 고객을 만나는 현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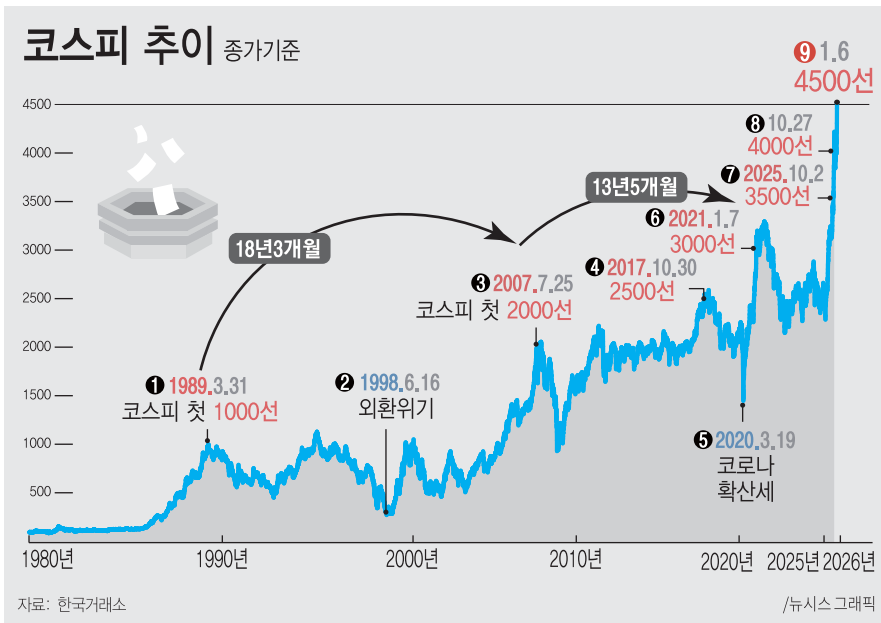
초보부터 큰손까지 투자 러시… 전문가들 “이달 5000 가능”

연이은 상승장에 머니무브 가속
증권가 ‘과거와 다른 시장’ 평가
“당분간 국내비중 확대 전략 유효”

“예금 이자는 커녕 손해볼 판인데 코스피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미래에셋증권 반포역WM 입구에서 만난 주부 박모(37)씨 얘기다. 박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SK하이닉스나 기아를 사는 게 금리가 2%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상담차 찾게됐다”고 말했다. 현금 이 없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빚투’(빚을낸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한프라이빗뱅크(PB)는 “증시가 활황세를 띠자 고객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른바 국내 증시 ‘유턴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7일 코스피가 장 중 4600마저 가볍게 넘자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집도 없는 데 주식도 오르고,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 지친 투자자들이다. 증권사



들은 코스피 6000도 결코 ‘꿈’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시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인공지능(AI) 투자 붐, 배당소득세 완화 등 증시 부양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한꺼번에 겹쳤다.

◆ 증시 주변자금 116조

이날 코스피는 0.57% 상승한 4551.06에 마감했다. 4600선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올해 들어 4거래일간 매일 사상 최고 지수 증수를 높여가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5000까지는 불과 448.94포인트가

인트가 남았다. 시중 자금은 무섭게 증시를 향한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일 88조6339원을 돌파했다. 한 달 전 78조1371억원 보다 10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돈(신용융자)은 6000억원가량 늘어나 전체 잔고는 27조7963억원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116조원에 다다른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826조원)의 15% 해당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다. 올해 들어서보름여 만에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 2만588개 개설됐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만 1조 5602억원 늘어났다. 이들 자금도 유사시에 증시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유동성도 증시를 향한다. 코스피 4000선을 다시 넘어선 지난달 3일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6000원어치 주식을 샀다.

◆ “6000도 가능”, 큰 손들은 증시로

지금 투자해도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AI 붐의 영향으로 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사상 초유의 실적 장세가 반도체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지수 상단은 6000선도 가능하다고 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리스마스 이후 코스피가 2주가 안 돼 거의 500포인트 올랐다”면서 “이 기세면 1월에도 코스피 5000도 바라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행 주가수익비율(P/E) 3년 평균의 +1 표준편차인 11.6배를 적용할 경우 5000

포인트 또한 가시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이익 모멘텀 강화 지속, 외국인 순매수 기조 등 최근 랠리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 급등의 여파로 기술적 과열 신호가 보이는 만큼 8일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후 재료소멸에 따른 ‘셀온’(sell-on·고점매도) 등을 발미 삼아 주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큰손들도 새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고 있다. 삼성증권이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401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32.1%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올해 투자 핵심 키워드로 ‘K.O.R.E.A.’라는 조어를 제시했다. 한국 주식(K-stock) 선호, 성과 사회(Outperform), 주식으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상장지수펀드(ETF) 활용, AI 주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성전자, D램·HBM 등 사업전망 호조… “24만원까지 갈 수 있어”

(맥쿼리)

AI 인프라 수요 등 수혜… 영업익 급증
증권가 목표가 상향, 밸류 부담도 제한적

“JY’(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끝까지 들고 있길 잘했다. 21세기 가장 현명한 투자자될 것 같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포털 사이트의 주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주가를 연일 갈아치우자 터져 나온 개미들의 환호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18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1.51%(2100원)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들어 14.45% 뛰었다. 이날 장중 14만4400원을 찍기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했다. 반도체주 훈풍에 삼성전자가 자체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더 끌어올렸다.

이 같은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의 사업 전망을 밝게 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

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D램(DRAM) 가격이 최대 6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이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3배로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수요가 커졌고, 메모리가 활용되는 영역이 피지컬 AI 등으로 넓어진데 근거한다. AI칩의 핵심 구성요소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본격적인 판매도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향후 2년 동안 D램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밀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적 전망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조498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 넘게 상향 조정됐다. 일부 증권사는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 4분기는 비용 반영과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메모리 가격과 환율 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6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렸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8만원으로 상향하며 “글로벌 D램 업체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Rubin), 구글(TPU) 등 ‘빅테크’ 고객사에서 2026년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이 예상되며, 2분기부터 H

BM 출하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월 현재 D램·낸드 수요는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다”며 “HBM4는 2026년 1분기 최종 품질 승인 이후 2분기부터 출하가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12억 Gb로 늘고, HBM 점유율도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증권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효과를 근거로 목표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다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이 만약 현실화하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반도체 대형주 쏠림현상 심화… 경기·환율에 따른 변동성 확대

반도체 업황이 시장 전반 좌우

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증시 상승세는 반갑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시장의 온기가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만 쏠려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코스피 거래대금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합산 비중은 36.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각 22.20%, 14.37%

씩이다.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비중은 지난 2020년 연초 27.27%에서 지난해 초 22.58%까지 내려갔다가 같은 해 연말 34.04%까지 높아졌고, 올해 36.57%까지 빠르게 급증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020년 4.72%에서 올해 14%대까지 올라섰다.

경기 부침이 있는 반도체의 향방에 따라 자칫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구조다. 수출의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산업의 거품 우려도 지켜봐야 하고, 글로벌 통화 중에서도 원화가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외국인 수입이

계속될지도 변수다.

간접투자 시장도 쏠림이 나타난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은 ‘ACE AI반도체포커스’(20.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TIGER 반도체TOP10’(17.60%), ‘RISE 반도체TOP10’(16.69%) 등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익률 상위 5개 상품 중 3개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문제는 자본시장 내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비해 낙수효과를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엮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반도체 기

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엮 연구원은 “대형 반도체 2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실적은 과거 4분기와 유사한 계절적 부진을 겪으며, 투자자가 체감하는 어닝 시즌의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스피200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비반도체 기업은 실적을 확인하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착시 현상은 수출에서도 두드러진다. 최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은 707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2024년 대비 22.2% 성장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 20.9%를 경신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반도체를 선두로 한국 수출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비반도체 품목의 수출 동력이 미약하게 유지되는 점은 수출 호조의 지속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李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 해달라”

3박4일 방중 일정 마무리

시진핑과 정상회담서 주요현안 논의
북핵 등 한반도 정세 장시간 의견 교환
남북 단절 상황에 인내 필요성 언급
미국·일본과 균형 외교 기조 재확인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7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직접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중국을 방문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6일엔 중국 공산당 2인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3인자로 꼽히는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했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陳吉寧)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났다.

방중 일정 마지막날인 7일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다. 또 상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회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봤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초 경북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정권 동안 사이가 멀어진 두 나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방중 일정은 ‘관계 진전’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감도 많이 이뤄졌던 것 같고, 대답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

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 외교’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 중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며 아주 긴 시간 (시 주석과)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

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현재 남북은 적대감만 남은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로는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여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현재까지의 대북 정책 노력을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인내심’은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된 채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 편을 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 이런 냉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물가안정·RE100 산단 지원 요구… 신성장 산업 육성에 공감

당정, ‘경제성장전략’ 협의

반도체·철강 산업 재편 속도 조율
RE100 산단 중심 지방 성장 전략
퇴직연금 기금화 1월 발표 가시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과 RE100 산단 조성 지원을 촉구했다. 당정은 신성장 산업 육성, 철강·석유 화학 산업 재편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합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첫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로 성장 전략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합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와 더불어 방산,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의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또한 ‘5곡3특’ 성장 엔진 연계 메가특구 추진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랑휴가지원 사업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재정 혁신 측면에서 혁신 조달의 확대,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한 후에 당사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 중에서 입법 사항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하는 안을 1월 중에 발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지만, 당정은 별도 실무 당정, 고위 당정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1월 중 당정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구윤철 “민생안정 총력”… 계란 224만개 수입·고등어 할인 지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첫 개최
SI 확산에 계란·닭고기 수급 선제대응
물가·일자리·복지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가 올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조하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

분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급 불안 막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대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충분한 양을 들여와 닭고기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이날 기준 432만 마리로 집계됐다.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약 10배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

부 측 설명이다.

또 고등어에 대해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산에 편중(77%)된 수입 비중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로 방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 효율화 및 경쟁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비상계엄 사과’ 장동혁… “변화 환영” vs “尹과 절연해야”

국민의힘 당 쇄신안 발표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후보들 ‘안도’
친한계, 쇄신 아닌 극우단체 포용
민주당 “계엄 대한 책임 인정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밝힌 것에 대해 당 내부 반응이 엇갈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장 대표가 ‘걸림돌’로 지목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어게인’을 하자는 꼴이라며 폄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장 대표의 쇄신안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당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장 대표의 입으로 이에 대한 사과가 나오므로써 지방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들은 안도의 목소리를 내쉬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과 지지자들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SNS에 “저는 일관되게 우리 당이 헌정 가치를 중심으로 계엄의 강을 건너고, 이를 바탕으로 큰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관건임을 주창해왔다”며 “또한, 청년들을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삼고, 정국을 주도할 획기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쇄신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김중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당 쇄신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을 평가절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사과? 폄”이라고 실소를 지었다. 이어 “고성국에 이어 자유대학 불러다 ‘윤거니(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어게인’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고성국씨는 전날(6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고 씨는 강성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방송 중

에 입당원서를 김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자유대학이란 극우 친윤 성향의 대학생 단체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학생 중심의 세력이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만들어가는 청년 중심 정당이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성국 씨나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들처럼 극우 성향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델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제대로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아직도 해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로 가지 못한다.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저릴 수 있는 것은 계엄 치트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너는 계엄했잖아’라는 것이 유효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의 사과가) 내용에 대해

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많다.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며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장 대표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제가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사과에 알맹이가 없다며 혹평을 내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며, 윤석열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다. 하지만 끝끝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는’ 경우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는 ‘찐 윤’ 인사가 배치되고, 반탄파 인사들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말뿐인 계엄사과가 과거 윤석열의 개 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중앙청과에서 경매를 마친 사과 상자를 운반차에 싣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개혁·민생 ‘투 트랙’ 행보 본격화

정청래, 가락시장 찾아 민심 청취
농식품부와 유통구조 효율화 고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점검 등 민생·경제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아침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의 첫 현장 방문지로 가락시장을 찾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을 찾았다. 민주당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국회가 아닌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당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추석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은 바 있는데, 이날 두 번째로 가락시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채소2동을 찾아 배추 경매장에서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사과 경매장을 찾은 정 대표는 경매를 마친 사과를 중간 도매인에게 배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오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과든 배든 대표 값이 필요하

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값, 너무 아래 값 보단 대표 값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역 노동자의 고단한 삶 이야기도 들었다”며 “하루에 12시간 6일간 일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부분도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민들에겐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또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며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통 구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부와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

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 입법과 민생 일정을 이어가는 ‘투 트랙’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목표는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한 번은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새해 첫 현장 최고위를 삶의 생기와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은 그것대로 하고,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하지만 민생 현장 속으로 항상 달려나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오는 9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엔 경남 거제시로 이동해 거제굴 양식장을 현장 방문한다. /박태홍 기자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정원오’ 소폭 앞서 (29.1%)

오세훈 22.8%, 나경원 16% 기록
정당은 민주당 43.4%, 국민의힘 33%

차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소폭 앞선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팬앰마이크 의뢰로 지난 4~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를 묻은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9.1%, 오세훈 현 서울시장 22.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0%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1%,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3.6%, 전현희 민주당 의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3%다.

여론조사 결과 여론의 지지도는 정 구청장에게 쏠리는 반면, 야권의 지지도는 오 시장과 나 의원에게 분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공개 석상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 구청장을 대놓고 칭찬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야권 후보들의 지지도 총합은 47.5%였던 것에 반해 여권 후보들의 지지도 총합은 43.7%여서 범야권 후보군의 지지도 총합이 소폭 앞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은 엇치락뒤치락 접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지난달 28~30일 조사에선 오 시장 37.0%, 정 구청장 34.0%로 오차범위(±3.5%포인트)안으로 지지도가 조사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28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은 각각 30.9%와 30.4%로 접전을 벌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의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6일 이틀간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43.4%, 국민의힘 33.0%,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8%, 그 외 정당 2.3%, 없음 13.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같은 조사보다 지지도가 3.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 응답률 5.4%로 조사됐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갈 래 야 갈 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우선 경영원칙 ‘안전’… AI 활용 품질·원가 기반 강화”

건설업계 신년화두

삼성물산 건설부문

“기존 관성넘어 과감한 실행 필요”

GS건설 “안전·품질, 신뢰로 이어져”

대우건설 하이퍼 E&C 올해 경영방침

건설업계가 새 해를 맞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한 생존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과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6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AI, 에너지 수요 확대 등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신사업 성과 창출을 본격화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기존 관성을 넘어 과감한 실행과 기술 중심의 경쟁력 강화, AI·D T를 활용한 효율 제고로 지속 가능한



허윤홍 GS건설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5일 부산신항 현장에서 일출과 함께 현장 사무식을 갖고 2026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GS건설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을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삼아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자”고 당부했다.

GS건설은 올해도 사무식을 현장에서 진행했다. 허윤홍 대표는 취임 이후 2024년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 임해 공업용수도 플랜트 건설현장, 올해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2~6) 상부시설 공사 현장에서 한 해를 시작했다.

허 대표는 “안전과 품질은 고객의 신

뢰로 이어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이 곧 GS건설 브랜드의 경쟁력”이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GS건설은 AI를 활용해 반복업무 자동화하고, 공정관리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업무속에서 AI를 활용한 실질적 역량을 확보해 건설업의 본질적 경쟁력인 품질, 안전, 공정, 원가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퍼(Hyper) E&C’를 올해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이퍼 E&C의 핵심과제는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초안전’ ▲‘초품질’ ▲디지털 전환(DX)으로 현장과 본사, 기술과 사람을 잇는 ‘초연결’ 등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올해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성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곧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안정적인 재무역량을 바탕으로 AI를 모든 업무에 확대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전(SMR)과 발전사업, 데이터센터와 해외시장의 확대를 도모해 미래의 성장기반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올해 경영방침으로 ‘사고의 전환, 혁신의 시작’을 제시했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안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 기준이며,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을 일상화해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지난해 실적 개선을 통해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현금흐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호반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2026 신년하례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대적 전환점에 서있는 상황에서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산업·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AI 전환과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더욱 가속화해 스마트 건설, 스마트 팩토리, 리테일 테크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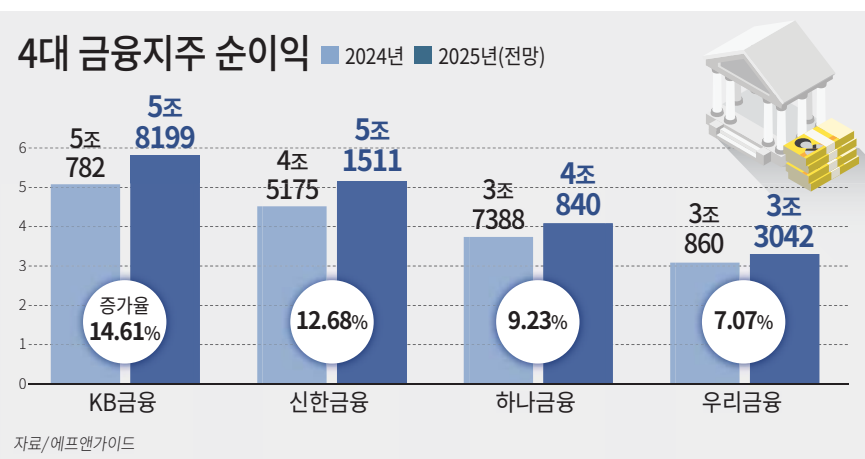
4대금융, 비은행 호조… 작년 순이익 18조 ‘사상최대’

코스피 호황에 비이자 이익도 확대
대출규제 등 올해는 증가세 감소 관측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8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증시 호황속에 은행의 자산관리(WM)·기업금융(IB)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과 보험·증권 등 비은행 수익확대가 순이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는 기업대출로 생산적 금융이 확대되고, 가계대출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며 순이익 증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025년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컨센서스는 18조3592억원으로 전년(16조4205억원)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2024년 5조782억원에서 지난해 5조 8199억원으로 14.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4조5175억원→



5조1511억원(12.68%), 하나금융은 3조 7388억원→4조840억원(9.23%)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3조860억원→3조3042억원으로 7.07% 증가가 예상된다.

4대금융이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자를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과 5월 금리를 각 0.25%포인트(p)씩 총 0.5%p를 내렸지만 4대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

월 평균 3.98%에서 11월 4.43%로 0.05%p 올렸다. 가계대출총량관리를 위해 이자를 높인 부분이 순이익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울러 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은행·증권 등 WM·IB사업 수수료이익 및 투자 수익이 증가하고, 보험업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힘입어 10조원을 넘기며 지주별로 전년보다 5~1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보면 KB손해보험(7669억원), KB라이프(2548억

원) 등 KB금융 계열이 1조원을 넘겼다. 또 신한라이프는 같은기간 순이익이 51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4대금융 계열 보험사 연간 순이익이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올해는 4대금융의 순이익이 안정적이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취급해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공급이 줄어든다. 줄어든 대출 만큼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혁신기업, 첨단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관리로 인한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최정국 하나증권 연구원은 “새해부터 주담대와 은행·비은행 보유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 변화,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자본비율 변화를 가져올 여러 요인들이 적용된다”며 “이번 1분기부터 자본비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연간 취급액 6배 꺾중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취급액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연간 취급액은 2024년 400억원에서 2025년 24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취급 확대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2025년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케이뱅크는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대출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4050세대 10명 중 4명 “노후준비 돼 있다”

보험개발원, KIDI 은퇴시장 리포트
주된 노후준비 방법 70% ‘공적연금’

4050세대 10명 중 9명은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2%로 추정되는 가운데 30~50대 현업 종사자

절반 이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600만원)의 2배 수준인 평균 1258만원까지 높이길 희망했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 대부분(90.5%)이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 지출도 자녀 교육비 평균 4629만원, 자녀 결혼비용 평균 1억3626만원으로 큰 반면, 은퇴 시 받을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돼 단독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노후준비 수단은 공적연금 쏠림이 뚜렷했다. 4050세대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공적연금이 69.5%로 가장 높았고, 개인연금은 6.8%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통계 분석에서는 2024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자의 소득대체율이 22%로 추정돼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은퇴시장 리포트가 보험산업에 있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도 고령화 및 은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 현대차그룹, 새로운 일상 공유

로봇 등 체험·시연 중심 전시
연구환경 구현 '테크랩' 눈길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CES2026에서 선보인 위 부품을 분류하는 휴머니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 등 인공지능(AI) 로봇틱스 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제품 및 연계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CES2026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 내에 1836㎡ 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그룹 AI 로봇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차세대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실물 로봇 전시와 함께 고객의 일상과 근무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나리오를 제시하며,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상을 체험·시연 중심 전시로 구현했다.

AI 로봇틱스 연구 환경을 전시 공간으로 구현한 '테크랩'에서는 휴머니드 로봇인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이 한쪽 선반에 있는 부품을 집어 반대쪽 선반으로 옮겨 분류하는

시연을 확인할 수 있다.

보스톤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은 AI 기반 이상 징후 감지 등의 기능을 갖춘 오르빗 AI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설비를 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AI 로봇틱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됐다. 차



자율 충전 로봇 활용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충전 시연 모습. /현대차그룹

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상용화 모델은 상단에 배송·물류 등이 가능하도록 탑 모듈을 장착하고 전시장을 누빈다.

전기차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개발된 로보택시도 함께 공개됐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는 현대차그룹과 모셔널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

용됐으며, 이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운전자가 필요 없는 고도 자율주행) 수준이다.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 시에도 운전자가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 물류 상하차 로봇 '스트레치'를 비롯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협동로봇' '자행물류 로봇' 등도 선보인다.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방수·방진 설계로 비나 눈과 같은 악천후와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기온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야외에 설치된 충전소에서도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로봇은 최대 3.4t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NOVA, 온바이브 등 'AI 퍼스트 비즈니스' 박차

시장 문제해결 통해 독립사업 확장
헬스테크 등 글로벌 스타트업 협력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이하 LG NOVA)가 CES 2026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LG NOVA는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6에서 'AI 기반 혁신 선도'를 주제로 유레카 파크에 전시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LG NOVA는 업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LG전자의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말 신설된 조직이다.

LG NOVA는 ▲AI ▲헬스테크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 'AI 기반 혁신 선도'를 주제로 마련된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 부스. /LG전자

클린테크 등 미래 산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11곳과 함께 전시관을 꾸렸다. LG NOVA가 인큐베이팅해 독립법인으로 배출한 회사들도 함께했다. 이들 스타트업에게 LG NOVA와 CES에 참가하는 것은 미래 고객과 투자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LG NOVA는 CES 전시에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AI 퍼스트 비즈니스'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첫 공개한 '온바이브'는 LG NOVA가 발굴한 AI 퍼스트 사업 후보로, LG NOVA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법인으로 출격을 앞두고 있다. 온바이브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능형 SNS 마케팅 플랫폼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활용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리뷰, 게시, 성과 측정까지 전 과정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제한된 자원으로 디지털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LG NOVA는 2024년 첫 스피어웬트 성과로 헬스케어 독립법인 '프라임포커스 헬스'를 배출했다. 지난해는 AI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파도 AI 오케스트레이션(이하 파도 AI)'과 AI 기반 진단 기술로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플랫폼 '딜리프 AI'를 독립법인으로 배출했다.

LG NOVA는 헬스테크, 클린테크, AI 등 미래 산업 영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한다. 이들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피어웬트를 통해 신규 사업모델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노바콘(NOVAcorn·LG NOVA 출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미이노베이션센터장 이석우 부사장은 "이번 전시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LG NOVA의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중, 美 해군 MRO 사업 추가수주

'USNS 세사르 차베즈'함 정비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세사르 차베즈(Cesar Chavez)'함의 정기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세사르 차베즈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12년 취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9일부터 울산 중형선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해 선체 및 구조물, 추진, 전기, 보조기 계통 등 100여 개 항목에 대한 정밀 정비를 수행한 뒤 오는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미 해군으로부터 처음 수주한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MRO를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해당 함정은 지난 6일 출항했다고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최초 계약 당시 60여 개 항목에 대한 작업을 요청받았으나, 정비 과정에서 100여 개 항목이 추가로 발굴되면서 정비 기간이 늘고 계약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HD현대중공업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MRO 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함정·중형선사업부 대표)은 "독보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첫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함정·중형선사업부 발족 이후 내실과 효율을 강화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LG엔솔, ESS·LFP배터리 생태계 활성화

전기안전공사 MOU… 안전성 강화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기안전공사(ESS) 안전성 강화와 국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김동명 최고경영자(CEO) 사장과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S 안전 강화 및 국내 LF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ESS 설비 안전 관리 정책 지원 ▲기간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오른쪽)과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ESS용 LFP 배터리가 적용되는 신규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점검·검사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관리 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공항 라운지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을 앞두고 고객들의 라운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7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해 2023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라운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리뉴얼 및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합 항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최상의 라운지 시설을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T2 라운지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안정적인 통합과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빠르게 증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고객 중심으로 질적 성장”... 생활가전社, AI기반 확장 가속

방준혁 코웨이 회장

“New Coway로 경쟁력 강화”

장평순 교원 회장

“비약의 해... 새 성장 기회 창출”

지기원 청호 대표

“제품 경쟁력으로 고객기대 혁신”

안무인 SK인텔릭스 대표

“렌탈 본질, 모든 전략 출발점”



방준혁 코웨이 회장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지기원 청호나이스 대표



안무인 SK인텔릭스 대표

생활가전 기업들이 기술·제품·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 극대화, 국내의 시장 추가 개척을 통한 성장 모색 등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AI) 기술 확대에 따른 다양한 도전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7일 개별 기업들에 따르면 코웨이를 이끌고 있는 방준혁 회장은 2026년 경영 화두로 ‘거센 파도를 넘어서는 NEW COWAY(뉴 코웨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사고와 고객 중심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방 회장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New Coway’ 전략을 기반으로 한 위기 대응력 강화와 질적 성장이 절실하다”며 “고객 가치 혁신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쟁력있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회장은 올해 코웨이와 모기업 넷마블을 포함해 “그룹의 질적 성장 원년”을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부터 비약하는 일만 남았다”며 ▲AI·데이터 기반 교육 체계 고도화 ▲전 생애 회원 관리 구조 구축 ▲생활문화 사업 경쟁력 및 그룹 시너지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생활가전인 교원웰스와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교원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지속 성장 전략도 내놔

다.

장 회장은 “올해 방문판매가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교원웰스를 통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시장에 없던 개척형 제품을 통해 렌탈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또 라이프 결합 상품 개발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이 1985년 창업한 교원그룹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청호나이스는 2026년 한 해 ▲고객 중심 혁신으로 시장 선도 ▲영업 경쟁력 획기적 강화 ▲글로벌 시장 성장 가속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기원 대표는 “올 한해는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을 고객에 두고 서비스 혁신과 품질 고도화는 물론 청호만의 남다른 발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을 차별화할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고객은 청호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가치로,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온 제품 경쟁력으로 고객의 기대를 한 발 앞서는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창업주인 정희동 회장의 작고로 부인인 이경은 이화여대 의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그룹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또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창신(創新) 정신’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SK인텔릭스를 이끌고 있는 안무인 대표는 “렌탈 비즈니스의 본질부터 단단히 하겠다”는 포부를 새해에 밝혔다.

안 대표는 “치열해지는 렌탈 시장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렌탈 비즈니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사명 변경과 함께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NAMUH) X’를 선보인 SK인텔릭스는 웰니스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안 대표는 “AI와 데이터는 우리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웰니스 로보틱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웰니스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중소·인디 브랜드 중국진출 지원

상하이서 ‘K-뷰티 글로벌 위크’
K-뷰티·벤처 중국 공략 확대
수출·투자 협력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K-뷰티 글로벌 위크’를 열고 K-뷰티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을 추가 지원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과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등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2위 규모를 지닌 중국은 K-뷰티 중소·인디 브랜드에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중소·인디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려 중국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전날 선보인 팝업스토어는 전시와 체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푸싱아트센터에서 열린 K-뷰티행사장을 방문, 왕홍 중국 인플루언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K-뷰티 체험꾸러미, 나만의 K-뷰티 굿즈 만들기 등 관람객들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열렸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중국 현지 4개 기관과 국내 업계 4개 기관이 심사위원으로 나섰다. 참가기업들에는 정부 수출지원사업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경진대회 발표와 평가과정을 관람한 후 팝업스토어 공간을 둘러보며 참여기업을 격려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히 팝업스토어 관람 중 끝벌 유래 원료에 기반한 포뮬러, 영국 비건 소사이터티 인증 비건클렌저, 피부과학에 기반한 더마코스메틱, 중국 특허를 보유한 뷰티테크 제품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는 압도적 품질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속도감 등으로 이번 상하이 행사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확인했다”면서 “혁신적인 중소 브랜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K-뷰티 글로벌 공고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상하이국제회의중심에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별도로 개최했다.

/김승호 기자

“올해 AI·로보틱스 기업 대전환 원년”

김준식 대동그룹 회장 신년사

전사적 AX 추진·수익 성장 가속
농업 현장 중심 실질 변화 강조

김준식 대동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AI·로보틱스 기업 대전환 원년’으로 선언했다. 전사적으로 인공지능 전환(AX)과 수익 성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7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김준식 회장은 “2026년 AI·로보틱스 대전환은 대동의 100년 대계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대동은 80주년, 100주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를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관세 전쟁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대동의 저력을 재확인한 해로 평가했다.

대동은 2020년 ‘미래농업 리딩 기업’ 비전 선포 이후 3개년 단위의 단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변화 기반 구축과 디지털 전환(DT)에 집중했고, 2023년부터는 미래사업



중심의 사업 전환과 AI·로보틱스 등 핵심 역량 육성에 주력했다. 새로운 3개년을 맞는 2026년부터는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토대로

로사업 전반에서 AI·로보틱스 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동이 추진하는 AI·로보틱스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과 필드 노동에서 고객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동만의 기술과 철학이 담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통해 성과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AI·로보틱스 상품 혁신 ▲전사적 AX 추진 ▲수익 성장 가시화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조직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만들어진다”며 “AI와 로보틱스 기술 혁명 가속화 시대일수록 ‘행승어언(行勝於言)’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 과감하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제조 스타트업’ 제품화 전 과정 지원

중기부, ‘제품화 올인원팩’ 신설
설계·시제품·양산 공정 일괄 관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설계·시제품·초도양산 등 각 공정단계를 여러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간 정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양변경, 일정지연, 비

용증가 등의 애로를 겪기가 쉽다. 이같은 공정 단절은 제작 오류와 비용 누적을 유발해 최종양산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전문기관이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조전문 주관기관은 공정 과정을 직접 돕거나 적합한 파트너를 매칭해 공정 전체를 관리·조정함으로써 제품화 공정 간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제품 설계

부터 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까지 제품화 공정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라면 누구나 주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제조서비스 역량, 전문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그간 실적 등을 평가해 총 6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80여개를 선발해 스타트업당 최대 5000만원의 제품화 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수준과 필요 서비스에 따라 디자인, 설계, 시제품, 초도양산 등 필요한 구간에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프리미엄 매트리스 구매 혜택 선포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제휴 참여
삼성카드 결제시 36개월 무이자 할부

시몬스가 글로벌 가전 브랜드 삼성전자의 연중 최대 행사인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에 제휴 브랜드로 참여한다.

7일 시몬스 참대에 따르면 먼저 삼성 전자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국의 시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500만원 이상

의 매트리스를 구매할 경우 몽클로스 룸스프레이와 디퓨저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하며,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시몬스는 공식 온라인몰에서 삼성카드 100만 원 이상 결제하는 회원들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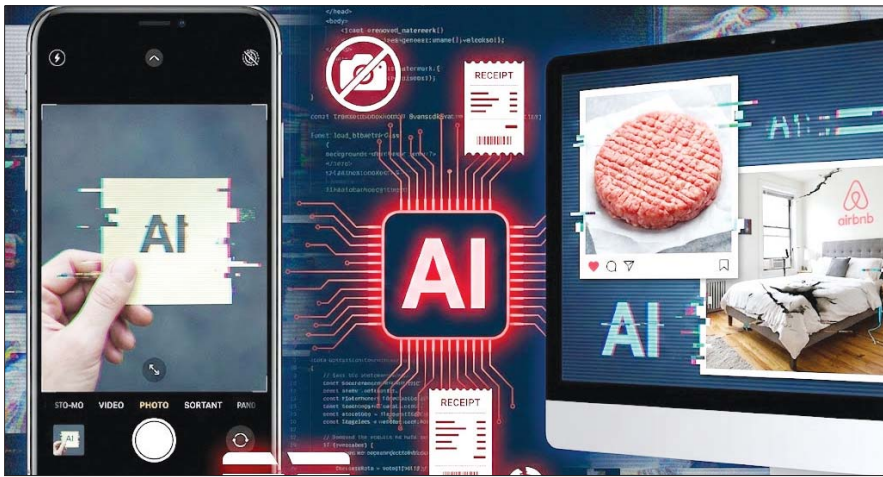
AI 사진위조, 일상 속 피해 잇따라… 새로운 검증 시스템 절실

제도·인식, AI 발전속도 못따라가
플랫폼 대응에도 AI 기술로 무력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의무보다
기술표준·법적기준 함께 정비해야
플랫폼 차원 필터링으로 한계 명확

#.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를 구매하려던 김여름(가명) 씨는 정교한 인공지능(AI) 이미지에 속아 거액을 사기당했다. 판매자가 포스트잇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물건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보냈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타인의 사진에 AI로 포스트잇을 합성한 것이었다. 김 씨는 “위화감이 전혀 없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소상공인들도 AI의 표적이 됐다. 수제 햄버거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패티가 덜 익었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 조리 공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손님이 보내온 사진 속 패티는 AI로 조작된 듯 정교하게 덜 익은 모습이었다. 김 씨는 “합성이 의심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토로했다.



AI 그래픽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고난도의 합성도 일반인이 간단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논란이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챗GPT, 제미니 등 이미지 생성 AI의 편집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구글의 ‘제미니 2.5 플래시(나노 바나나)’ 모델은 이미지 속 인물과 사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능력이 뛰어나 악용되고 있다. 과거 포토샵 등 전문 기

술이 필요했던 사진 조작이 이제는 초보자도 몇 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대중적 사기 수단’이 된 것이다.

악용 사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AI로 조작된 숙소 파손 사진을 제출해 수천 파운드의 허위 보상을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호주에서는 AI로 합성된 가짜 영수증과 송장을 이용한 세금 공제 및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공인부

정조사협회(ACFE)는 전 세계 보험 조치가 매출의 약 5%를 이룬 사기로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가 교묘해지자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머신러닝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고나라는 AI 이미지 검수로 워터마크 식별과 파손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들 역시 동일한 AI 기술을 활용해 방어망을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통해 AI 생성물에 가시적 식별표지(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 재생 내내 워터마크를 노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IT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한다. 단순 채색이나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AI를 쓴 경우까지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것은 창작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가시적 워터마크는 AI를 이용해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

로 구글의 제미니AI조차 명령 한 번에 자사 워터마크를 지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기 의무화보다는 메타데이터 암호화나 삭제 불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기술적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가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된 만큼, 기존 신뢰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검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 플랫폼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진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가려낼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AI 합성 이미지는 원본과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플랫폼 차원의 필터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AI 이미지 사기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보험, 세무 등 신뢰를 전제로 한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사후 책임을 플랫폼에만 지우기보다 기술 표준과 법적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e스포츠 경쟁구도 ‘SOOP vs 치지직’ 재편

LCK 중계권 구조개편… 유튜브 제외
SOOP, 기존 이용자 체류시간 유지
치지직, 스트리밍 플랫폼 정체성 굳히기

이달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공식 대회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중계에서 유튜브가 빠지면서 국내 e스포츠 중계 시장의 경쟁 구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SOOP(쑤)과 치지직이 사실상 양강 체제로 전환되며, 단순 중계를 넘어 플랫폼 체력과 시청자 충성도를 가르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간 LCK 중계는 유튜브라는 범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분산되는 구조였다.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가 시청자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개별 플랫폼의 체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중계권 구조 개편으로 유튜브가 빠지면서, 실시간 시청자 유입과 체류 시간을 온전

히 흡수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경쟁의 초점도 ‘중계 가능 여부’에서 ‘시청자를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느냐’로 이동했다. 중계권을 확보한 플랫폼은 늘어난 반면, 시청자 파이는 제한적인 만큼 플랫폼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SOOP은 오랜 기간 e스포츠 중계를 통해 축적한 스트리머 생태계와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LCK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문화와 후원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SOOP이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체류 시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치지직은 성장 국면의 플랫폼답게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택했다. 네이버 포털과의 연계, 검색 노출, 로그인 기반 접근성은 치지직의 가장 큰 무기다. 여기에 클립형 콘텐츠와 하이라이트 소

비를 통해 LCK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시청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치지직은 LCK 중계를 단순 이벤트가 아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굳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내부에서는 LCK를 중심으로 스트리머 유입과 콘텐츠 생산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를 실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즌 LCK 중계가 단순 시청 수 경쟁을 넘어, 플랫폼의 지속 시청률·커뮤니티 활성화·광고 상품 경쟁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이번 LCK 중계는 단기 트래픽보다 시청자 잔존율과 플랫폼 특인 효과가 핵심”이라며 “SOOP과 치지직 중 어느 쪽이 장기 체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을 통해 명확히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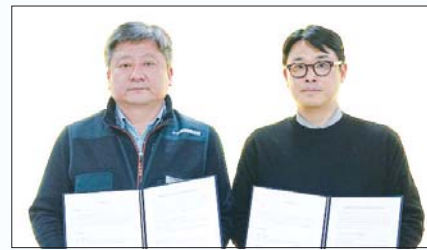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 운전자 노조와 단체협약

대리운전·퀵서비스 근로환경 개선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사업실 상무와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노동기본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고충처리제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A gent사업실 상무(오른쪽)와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도 운영, 안전보건 활동 강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공동으로 나선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CNS, 국방 IT 사업 연이어 수주

국방정보화 안정적 운영 지원

LG CNS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은 육·해·공군과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네트워크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LG CNS는 약 15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각 군의 네트워크 환경을 표준화하고 중복 설치된 장비비를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1대1 연동 구조로 복잡했던 정보 공유 체계를 단순화하고, 정보 흐름을 일원화한다.

이번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기술을 적용해 전국에 분산

된 라우터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비,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 인프라를 고성능 장비로 전환하고, 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을 도입해 비정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할 예정이다.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방시설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기획·설계·공사·운영·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LG CNS는 온나라2.0, 국방재정정보체계 등 12개 내부 업무시스템과 공공마케팅, 환경부 율바로시스템 등 8개 외부 시스템을 연계해 국방시설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中 AI 모델 기술종속 우려 부인

“비공개 기술 무단차용 사례 아닌
공개 오픈소스 모델 활용한 것”

네이버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활용 논란에 대해 “비공개 차용이 아닌 공개 오픈소스 활용”이라며 기술 종속 우려를 부인했다.

논란이 기술 선택을 넘어 AI 주권과 산업 전략 문제로 확산되자,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AI 업계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중국계 AI 모델을 일부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기술 선택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며, 기술 종속과 보안 우려가 동시에 불거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비공개 기술을 들여오거나 무단 차용한 사례는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의 기술을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능과 비용, 개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현재 자체 AI 모델을 중심으로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영역을 단일 모델로 해결하는 방식

은 택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목적에 따라 외부 오픈소스 모델을 병행 활용하는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AI 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술 스택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조합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AI 기술을 둘러싼 보안·윤리 이슈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네이버가 적용 범위와 활용 목적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최빛나 기자

کم백하면 비과세 혜택에도... 서학개미, 다시 미장에 ‘베팅’

다우 4만9000선 돌파에 미장 강세 연말절세 매도 뒤 연초 美 주식 매수 조정 국면에도 AI·실적 기대 유지 환율·세계 변수 속 해외 투자 반복 RIA 확대 논의, 실제자금 이동은 제한

자영업자 최모(43)씨는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최씨는 “‘국내시장 복귀계획’(RIA)을 통해 받을 혜택을 고민이 많았지만, 세금보다 수익이 더 클 것 같아 미장(미국 시장)에 머물기로 했다”면서 “인공지능(AI) 역량에 힘입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데다 올해는 AI 쇼핑 시대가 본격화되며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 소식에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폭넓게 RIA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학 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장 사랑은 식지 않고 있다. 뉴욕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4.90포인트(0.99%) 오른 49,462.08에 거래



뉴욕증권거래소 인근에는 ‘돌진하는 황소상(Charging Bull)’의 모습. 영하의 추위에도 관광객들이 몰려있다. /허정윤 기자

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만9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77포인트(0.62%) 오른 6,944.82에 마감, 역시 사

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35포인트(0.65%) 오른 23,547.17에 거래를 마쳤다.

서학개미들은 미장으로 달려가고 있

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9억7279만달러 규모다. 전 달 18억7384만달러의 절반 가량을 4거래일 만에 사들인 셈이다.

정부가 RIA 혜택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서학개미들이 좀처럼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 안정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RIA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매도로 얻은 시세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판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국내 채권과 예금,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를 국내로 복귀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국내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일정 기간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매각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제혜택이란 당근과 투자 이득 사이에서 서학개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뉴욕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많아 서다.

블룸버그통신이 21명의 월가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올해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예상하는 평균 상승률은 9%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기업 실적 개선을 주요 지지 요인으로 꼽았다.

월가 대표 강세론자이자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아데니는 “비관론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틀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레퍼토리에 다소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S&P500이 내년 약 11% 상승해 770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운용사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강한 (주식 상승) 추세에 타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역발상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0년 만에 100조 돌파

국내 ETF 중 최단 기간 기록
테마형 출발해 연금 투자로 확장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 40% 수준
해외지수·금·채권까지 영역 다변화

국내 ETF 시장이 ‘상품 경쟁’ 단계를 넘어 ‘투자 인프라’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변곡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가 있다. 테마형 ETF의 출발점에서 연금·글로벌 자산배분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며, 국내 ETF 산업의 외형과 성격을 동시에 바꿔놓았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 국내 ETF 브랜드인 TIGER ETF의 순자산 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6일 종가 기준 TIGER ETF 220종의 순자산 합계는 100조3159억원이다.

2006년 6월 첫 상품을 선보인 TIGER



TIGER ETF 순자산 100조

ETF는 올해 상장 20주년을 맞았다. 출시 이후 20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최단 기록을 세웠다. 특히 2024년 3월 순자산 50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2년 만에 규모가 두 배로 커지며 성장 속도가 가팔라졌다.

TIGER ETF의 성장 배경에는 ‘장기

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일관된 전략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TIGER 반도체’와 ‘TIGER 은행’을 출시하며 국내 테마형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후 반도체, 바이오,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등 대한민국 산업 구조 변화와 맞닿은 테마를 지속적으로 ETF에 담아왔다.

대표 상품인 ‘TIGER 반도체’는 6일 기준 누적수익률 892%를 기록하며 테마형 ETF의 대표적인 장기 투자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TIGER 200’ 역시 낮은 보수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으며, 2008년 상장 이후 누적수익률 296%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투자 영역에서도 TIGER ETF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인 ‘TIGER 미국나스닥 100’은 상장 이후 누적수익률 1553%

를 기록했다. ‘TIGER 미국S&P500’은 순자산 13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최대 규모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자들의 핵심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산군 측면에서도 확장이 이어졌다. TIGER ETF는 주식형을 넘어 금과 채권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글로벌 자산배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 자산 47조8000억원, 해외 자산 50조7000억원, 국내외 혼합 자산 1조8000억원으로 비교적 균형 잡힌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TIGER KRX 금현물’을 출시해 개인 순매수 5378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ETF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를 상장하며 상품 구조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

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ETF’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기준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 50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TF가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와 연금 자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TIGER ETF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은 “TIGER ETF의 100조원 돌파는 지난 20년간 연금 장기 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믿고 함께해 준 투자자들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돕는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한국증시 특화 ‘산업분류체계’ 자체 개발

국내 증권사 최초 분류체계 구축
코스콤과 협력해 지수·외부 제공
국내 상장사 13개 대분류로 세분
데이터·리서치 경쟁력 강화 목적

NH투자증권은 코스콤과 협력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한국 증시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 ‘NHICS(NH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자체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NHICS는 윤병운 사장 취임 이후 추진돼 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서치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단기 상품 성과 중심의 경쟁을 넘어 국내 자본

시장의 구조적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참여자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이 산업 분류 체계의 설계와 상장기업 분류를 담당하고, 코스콤이 외부 제공과 산업지수 산출을 맡았다. 증권사와 금융 IT 전문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산업분류체계를 공동 개발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NHICS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분류 13개, 중분류 31개, 소분류 73개로 나눈 3단계 구조의 산업분류체계다. 산업별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한국 자본시

장의 구조와 산업 특성, 실제 투자자의 시각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중요성이 큰 2차전지 산업을 별도 대분류로 독립시켰다. 기존 글로벌 분류체계에서는 2차전지 기업이 IT 산업에 포함돼 산업 성과가 혼재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NHICS는 핵심 산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를 별도 대분류로 설정하는 등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시장 친화적 설계도 차별점이다. 기업 분류 시 매출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산업 전문 애널리스트의 정성적 분석을 결

합해 실제 산업 내 역할과 투자 관점에서의 기업 위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예컨대 현대로템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기계’ 산업에 포함됐으나, NHICS에서는 방산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으로 재분류됐다. 이를 통해 산업 성과와 개별 기업의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어 체계에서도 투자자 이해도를 높였다. ‘양방향미디어와 서비스’와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플랫폼’ 등 직관적인 용어를 적극 도입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했다.



한국형 산업분류체계 ‘NHICS’ 개발. NH투자증권

윤 사장은 “NHICS는 데이터와 리서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의 성과”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와 투자자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 산업분류체계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일반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노동부, ‘쿠팡TF’ 구성… 부당노동·산재은폐 의혹 정조준

계열사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총동원
플랫폼 고용 모델로 확산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정조준하고 노동·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 와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불법파견, 산재 은폐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된 데 따른 것으로, 필요시 강제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합동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합동 TF는 산업안전 분야 15명(서울청·서울강남·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노동 분야 17명(서울청·경기청 등 7개청)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건 수사에 그



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치지 않고,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하는 등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 이래 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으로 쿠팡이 직면한 리스크는 단순한 개별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플랫폼 기반 고용·물류 모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넘어 대규모 시정명령과 구조 개선 압박

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쿠팡CLS를 중심으로 한 물류·배송 구조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직결돼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쿠팡을 시작으로 물류·배송·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 영역을 사실상 제도권 노동·산안 관리 체계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전통과 혁신 접목한 9대 신기술 공개

CES 2026 참가… 한전관 운영
‘미래 전기 거북선’ 모티브로 구성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국가대표 전시관을 선보인다.

한전은 6일~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전시에서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



CES 2026 한전 전시관 전경. /한전

에서 공개한다.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LED 실감 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 요약 영상 ▲확장형 QR코드 기반 기술 상세 영상 등 4단계 체험형 구조로 구성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상징적 스토리로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시대 혁신 무기인 거북선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거북선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상징인 만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구현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대한민국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전은 이번 CES 참가를 단순한 기업 전시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인식 아래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농 우대 집적지구 4년 내 140곳 조성

농식품부, 청년농 진입장벽 완화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늘린다’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년농 전용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사업신청면적 및 재무요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을 조성해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의 진입장벽 완화 및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다.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신청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

다.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해 쌀은 10ha(헥타르)에서 5ha로, 원예·가공은 5ha에서 3ha로 줄인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5년간 결산재무제표·영농현황·매출전표 등 서류도 3년으로 줄인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해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품목도 크게 늘린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최대 80%(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해 농촌생활복합센터 86곳 개소

농식품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초점

지난 한 해 국내 농촌 지역에 총 86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가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지난해 51개 시·군에서 생활 SOC 복합센터 8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복합센터는 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문화·체육 공간 등을 갖춘 지역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자리잡으며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 양평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가 꼽힌다. 연간 약 1만 명이 다녀간 이 센터에선 독서, 방과후 돌봄, 직업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충남 아산 신창면 ‘신창행복농업터’는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개관 1년 만에 이용객 수 1만 명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개편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신규로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터 내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관계 인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경북 포항시 남구 옥천읍에 조성된 ‘다원복합센터’ /뉴시스

위해 ‘다시온(ON:淵) 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시범지구로 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했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관광 기능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재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 시설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점검 체계도 개편한다. 지구별 종합 평가지수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살핀다

지방해양수산청별 점검반 구성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 대상의 밀린 임금 도합 5억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에 대해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전북, 해상풍력 선도지로 도약… 서남권 2.4GW 조성 본궤도

고창 해역 0.2GW 확산단지1 선정
1.3조 투입 에너지 사업 본격화
주민참여 확대·지역 수익 환원 구조
유지보수 등 인프라 연계산업 육성
부안 해역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산업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 단지1 고창 0.2GW 해역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은 곳으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선정된 서남권윈드파워(주)



해상풍력-조감도

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을 대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컨소시엄에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디엔아이코퍼레이션, 그린종합건설(주), ㈜부강건설, ㈜세광종합기술단,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한전KDN과 중앙해양중공업(주)도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된다.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이후 2050년 12월까지 20년간 상업 운전이 이뤄진다.

서남권윈드파워(주)는 올해부터 발전사업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단지배치 설계, 주민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환원을 위해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치로 확보해 발전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항만인프라 조성 and 유지보수항 개발, O&M 장비 및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도는 이번 고창 해역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해역 등 추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선정될 부안해역 사업자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발전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까지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35억 확보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39개 시장에 대해 국비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비 35억원 포함 총 56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85억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이번 공모 가운데 경북도는 '특성화시장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부문에서 5곳(20억원)이 선정됐다.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교체에 지원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서는 4곳(23억원)이 선정됐다. '시장경영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부문에서는 30곳(13억원)이 선정됐다.

/경북=김진수 기자

부산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42억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총 42억743만3000원(잠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자 8개 특광역시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전년 하반기에 진행한 경품 이벤트가 주요한 역할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벤트 기간인 지난해 10월16일~12월31일에만 전체 기부 인원(4만1849명) 중 과반수(2만9000여 명)가 동참했고 모금액은 29억6000여 만원으로 전체 실적의 약 70%를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함양군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

함양군이 남부권 산불 대응을 총괄하는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하면 봉전길 62번지 서하초등학교 봉전분교 부지에 들어선다.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본부로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 남부권 산불 예방·대응·상황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다.

이번 유치로 함양군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함양군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센터 구축 계획으로 행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산불 대응 최적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문경공고 AI로봇 마이스터고 전환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 AI 로봇 마이스터고 전환 선포식을 열고, 미래 로봇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선포식은 문경공업고가 기존 공업계 특성화고에서 AI 로봇 인재 퇴출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환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경공업고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AI 로봇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4학급, 총 12학급 180명 규모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집적화 가속

AI·스마트농업 기반 미래농업 선도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연계 추진
연구·실증·교육 융합 플랫폼 구축

해남군이 전국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농업연구단지가 AI·스마트 농업 기반의 미래농업을 이끄는 선도지구로 육성된다.

특히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내년 착공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연구단지내 관련 시설들도 빠르게 집적화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앞당겨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공모 선정된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착공, 2028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의 시급성에 따라 여타 공모사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연관시설을 집적화해 국내 최대 규모 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총 82ha 규모로, 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농업 실증시험 기반시설 등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APC, 채소류 종자전문생산단지 등 시설들이 들어선다.

특히 교육 연구시설과 민간기업의 R&D시설, 마늘·고구마 육종시설 등이 추가로 조성되어 연구에서부터 현장실증, 기술보급, 교육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천, 화더코리아와 1000만불 투자유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 구축

영천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화더코리아(유)와 1,0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왕밍 화더코리아(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더코리아(유)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에 1,000만불을 투자해 도어핸들과 액추에이터 등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5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유치본부장, 왕밍 화더코리아(유) 대표이사, 최기문 영천시장.

화더코리아(유)는 중국 최대 자동차 도어핸들 생산기업인 화더홀딩스그룹의 자회사로, 2021년 7월 설립돼 경기도 시흥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며, 자동 도어핸들과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경남신보, 2조 보증·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금융부 신설·맞춤형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올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포용적 금융'과 '디지털 혁신'을 양대 축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2026년 약 6만 8000건, 총 2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726억원 늘린 약 52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단순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정책 개발 기관으로서 기능도 강화한다. 경남신보는 홈페이지 내 정책통계 센터를 구

축해 보증 공급 추이와 대위변제율 등 핵심 경영 지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도민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포럼도 개최한다.

비금융 지원은 기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 진단 기반 창업 지원, 위기 징후 업체 집중 지원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 복지 상담 서비스를 소비 관리, 신용 회복, 가게 재정 진단 등으로 다각화해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주군, 농가소득·먹거리 복지 강화

577억 투입 농정시책 확대

울산 울주군이 올해 577억원을 투입, 군민의 먹거리 복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 시책을 확대한다.

군은 6월 농가 소득 안정에 265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140억원,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160억원, 미래 농업 육성에 1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먹거리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다. 군 내 초등학교 12학년 2300명에게 국내산 과일을 주 12회, 연간 30회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외식업종 결제 금액의 20%를 지

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의료 취약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언양, 삼남·삼동, 웅촌, 상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과 지역농협, 병원이 협업체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 지원 인원도 400명에서 578명으로 확대한다. 짝수년도 출생 51~80세 농업 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며 2년 주기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 검진과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K-패션 기업, ‘현지화·O2O’로 中 시장 재공략 가속화

〈온·오프라인 연계〉

방중 경제사절단 ‘형지·무신사’
형지,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논의
무신사, 플랫폼 차원 中 진출 의지

LF, 현지 팝업·매장 통해 영향력 ↑
코오롱스포츠, 아웃도어 열풍 탑승

국내 패션업계가 중국 시장 재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사드 보복 여파로 유통 대기업들이 중국 사업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로 패션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방중 경제사절단에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과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포함돼 중국 현지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을 핵심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패션그룹형지는 단순 의류 수출을 넘어 ‘하이테크’ 분야로 전선을 넓혔다. 최병오 회장은 이달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사전 간담회와 인민대회장 국빈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문을 연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 안푸루.

/무신사

만찬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청위쥔 회장, 글로벌 가전기업 TCL의 리동성 회장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미래 신사업인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 형지는 이미 중국 교복 시장에 안착한 합자법인 ‘상해엘리트’의 인프라에 현지 테크 기업의 기술력을 더해 B2G(기업-정부 거래) 및 실버 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신사는 ‘K-패션 플랫폼’의 현지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조만호 대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플랫폼 차원의 중국 진출 의지를 피력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 안타스포츠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달 상하이 쇼핑 중심지인 화이하이중루와 안푸루에 ‘무신사 스탠다드’와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를 연달아 열었다. 무신사는 엔하이픈 성훈을 앰배서더로 기용

하는 등 현지 2030 세대를 겨냥한 팬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업뿐 아니라 다른 패션 기업들도 중국 공략에 나서고 있다. LF는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Dunst)와 헤지스(HAZ ZYS)를 앞세웠다. 상하이 화이하이중루에 오픈한 던스트 팝업스토어는 운영 2주 만에 방문객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11~12월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 씨티닷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축한 브랜드 감도를 오프라인 공간 경험으로 확장해 현지 MZ세대의 소비 심리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헤지스 역시 중국 내 프리미엄 입지를 굳건히 다지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헤지스는 중국 3대 신사복 기업인 ‘빠오시냐오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고급 백화점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약 58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키워왔다. 특히 이달 중 상하이의 대표적 인력서리상권인 신천지에 첫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유통망 확장을 넘어 철

저한 고급화와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 중국 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LF만의 글로벌 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코오롱스포츠도 중국 내 아웃도어 열풍을 타고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안타그룹과의 합작사를 통해 현지 공략에 나선 코오롱스포츠는 2024년 리테일 기준 매출 약 7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업계에서는 2026년 매출 1조원 돌파를 점치고 있다. F&F의 MLB 역시 2025년 3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271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레시피그룹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세터(SATUR)는 상하이 파슨 쇼핑센터에 5호점을 내는 등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중국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는 사이 K-패션 기업들은 철저한 현지화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으로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며 “패션이 뷰티를 잇는 새로운 수출 주력 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고메드갤러리아, 급식·외식 결합 서비스 도입

‘고메드갤러리아 비전 2030’ 열어
매출 3600억·영업익 200억 목표
‘큐레이션 F&B’로 차별화 전략

지난해 12월 한화그룹 편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린 고메드갤러리아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향후 사업 방향성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메드갤러리아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고메드갤러리아 비전 2030’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워홈과 고메드갤러리아 임직원 200여명이 함께했으며, 신세계푸드 급식 부문 인수에 이어 고메드갤러리아 출범을 주도한 김동선 아워홈 미래비전총괄 부사장도 참석했다.

고메드갤러리아는 기존의 프리미엄 식음 시장 경쟁력에 한화그룹 유통·서비스 부문의 역량을 더해 프리미엄 F&B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차기팔 고메드갤러리아 신임 대표는 “고메드갤러리아는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2030년까지 매출 36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달성해 프리미엄 F&B 시장을 선도하겠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메드갤러리아 비전 선포식에서 차기팔 신임 대표가 고메드갤러리아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고메드갤러리아

다”고 말했다.

고메드갤러리아는 ▲프리미엄 단체 급식 ▲컨벤션 및 컨디션 ▲주거단지 F&B(아파트 커뮤니티)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여러 가지적 성과를 내온 시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되는 만큼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급식과 외식의 강점을 결합한 ‘큐레이션 F&B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객의 니즈와 공간의 특성에 맞춰 메뉴 구성부터 운영 방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메드갤러리아의 차별화 전략이다.

차 대표는 “큐레이션 F&B는 고메드갤러리아가 지향하는 프리미엄의 핵심”이라며 “구내식당, 아파트, 레저 등 고객이 머문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F&B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아워홈이 보유한 8개 제조공장과 14개 물류센터 기반의 제조·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품질 고도화와 운영 효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연회 다이닝 운영 노하우와 한화푸드테크, 한화로보틱스의 로봇·주방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F&B 시장 전반에서 차별화된 운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메드갤러리아 관계자는 “급식과 외식의 경계를 허무는 프리미엄 큐레이션 역량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기술·인프라·운영 역량을 결합해 프리미엄 F&B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베트남 다낭점·나짱점 리뉴얼

그로서리 중심 체류형 매장 선택

롯데마트는 이달 1일 베트남 다낭점과 나짱점을 재오픈하고, 관광객과 현지 상주인구의 수요를 모두 아우르는 그로서리 중심의 체류형 매장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두 점포는 소득 수준이 높고 유통 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을 반영해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미래형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먹거리 강화다. 다낭점은 식품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30% 확대한 1100여 평 규모로 재편했다. 자체 신선 PB 브랜드 ‘FRESH 365’를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고, 한국 딸기 등 수입 과일을 모은 ‘글로벌 신선 존’을 도입해 프리미엄 식재료 수요를 공략한다.



롯데마트 다낭점 요리하다 키친 매장 전경.

/롯데마트

즉석조리 특화 매장인 ‘요리하다 키친’에서는 김밥, 떡볶이 등 K-푸드 메뉴 비중을 20% 수준으로 늘리고, 베이커리 브랜드 ‘퐁미소’와 피자 브랜드 ‘치즈앤도우’를 도입했다. 특히 외식 문화가 발달한 점을 고려해 다낭점의 취식 좌석을 120여 석으로 2배가량 늘려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 새해 맞아 건강한 식습관 제안

오는 14일까지 ‘클린푸드 페스타’

홈플러스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는 ‘클린푸드 페스타’를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인 ‘클린푸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홈플러스는 과일, 정육, 수산, 견과류 등 핵심 신선 카테고리 상품을 대폭 강화하고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7대 카드 결제 시 ‘15Brix 사인 머스켓(1.5kg)’을 9990원에 선보이며, 해동 새우 전 품목은 50% 할인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호주청정우척아이들과 부채살을 최대 반값에 구매

할 수 있다. 또한 아몬드, 호두, 두부 등 건강 간식과 식재료는 1+1 혜택으로 선보이며, 프리미엄 올리브유는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제주도 제철 먹거리를 모은 ‘제주물산전’도 함께 열린다. 제주 밀감, 무, 콜라비, 브로콜리 등 겨울 제철 채소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싱싱화관 제주 광어회와 생물 갈치 등 수산물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이와 함께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간식류(유부초밥, 햄, 만두 등)를 1+1으로 선보이며, 8일부터 11일까지는 한돈 삼겹살과 목심을 40% 할인한다. 내복, 기모 타이즈 등 방한용품도 최대 5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GS25, 1만원 대 위스키 ‘티처스’ 품질 대란

초기 물량 3만 병 완판… 신상품 1위

위스키 시장에 ‘가성비 돌풍’을 일으켰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하이볼 열풍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GS리테일은 지난달 GS25가 단독으로 선보인 1만원 대 초저가 스코치 위스키 ‘티처스’가 한 달 만에 초기 물량 3만 병

을 모두 팔아치우며 위스키 카테고리 신상품 매출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파격적인 가격에도 균형 잡힌 몰트 풍미와 부드러운 바디감을 갖춰, 입문자는 물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가성비 체감형’ 위스키로 입소문을 탔다.

GS25는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해 이달 7일부터 추가 물량 2만 병을 긴급 투입하고, 오는 3월까지 3만 병을 추가로 확보

해 안정적인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편의점 위스키 시장은 ‘초저가’와 ‘초고가’로 나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GS25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 원대 가성비 위스키 매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10만원 이상 프리미엄 위스키 매출 역시 63.3% 늘어나며 동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GS25는 이달 말까지 주요 인기 위스키 20종에 대해 네이비페어·토스페이 결제 시 2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약가 개편 두고 제약바이오 “수익성 어찌나”

제약바이오기업 CEO 설문조사 가격 경쟁 심화 우려 의견 92% 보완책으로 혁신형 제약 유연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를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추가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비대위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그 결과, 설문 참여 59개 기업 중 54개(91.5%)는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 10개 기업 중 7개는 ‘수급 안정 가산’을 위한 국산 필수약품 생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 안정 가산은 원료 직접 생산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약품에 대한 우대를 담은 제도다. 이를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에 불과했다.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약품을 생산할 의향에 대해선 ‘없다’고 답한 기업이 59.3%(35개),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 수준이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52.5%(31개)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

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50개 기업이 반대 의사를 표실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설문 참여 기업은 이번 약가제도 보완책으로는 혁신형 제약 기준

유연화·펀드·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정부 지원책에 대한 주관식 응답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가 가장 많이 나왔다.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필요한 보완 사항으로는 시설투자·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준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우려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국제약 ‘DK SHOP’ 회원 100만명 감사제

동국제약이 오는 31일까지 자사 공식 쇼핑몰 ‘DK SHOP’에서 100만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DK SHOP 누적 회원 수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열리게 됐다.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비롯해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헬스케어 브랜드인 ‘센시안’, ‘덴트릭스’ 등의 인기 제품을 최대 77% 할인한다. 또 본품을 추가 증정하는 등 DK SHOP 단독 세트를 구성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규가입 회원에게는 ‘웰킵’과 첫 구매 시 즉시 사용 가능한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컨디션, 제로로 즐겨요”

HK이노엔은 무선탕숙취해소 제품군으로 ‘컨디션스틱 제로’ 3종(사진)과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메론소다맛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컨디션스틱 제로는 젤리 제형을 갖춘 막대형 제품이다. 컨디션맛, 망고맛에 더해 샤인머스캣맛까지 새롭게 선보인다. 해당 제품 모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준수해 인증받았다. 또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독자개발 숙취해소 효능소재(미배아발효추출물 에스, 효모추출물혼합분말, 자리추출물분말, 니파팜농축분말)를 함유한다.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은 탄산음료형 제품이다. 이번에 메론소다맛을 추가해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공략한다.

/이청하 기자



더후 ‘환유고’ APEC 한정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더후’ 환유고 APEC 한정판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에서 ‘환유고’ APEC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협찬으로 전달된 제품이다. 당시 각국 정상에게 선물한 ‘국빈 세트’를 그대로 선보인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수곡(守谷) 손대헌 장인이 손수 만든 주칠(朱漆·붉은 칠) 국화당초문 나전칠기함에 환유고 60ml와 봉황 스페큘러를 담았다.

환유고는 더후의 고급 향노화 크림으로 30년 동안 자라는 산삼의 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피부장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청하 기자

엑세스바이오, AAC 홀딩스와 ‘맞손’

웰니스 플랫폼 기업 도약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 진출 150억 투자·합작법에 50억 출자

해외진단 전문기업 엑세스바이오(AccessBio, Inc.)가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에 진출하고 궁극적인 데이터 기반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 한다.

엑세스바이오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 AAC 홀딩스에 150억 원을 투자하고, AAC 홀딩스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법인 ‘AACG’에 양사가 각각 50억 원을 출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뷰티 트렌드 속에서, 엑세스바이오가 보유한 진단 기술 역량과 AAC 홀딩스의 메디컬 에스테틱 운영 경험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종합 웰니스 케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AAC 홀딩스는 종합 미용 의료 플랫폼이자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기업인 자회사 AAC를 통해 메디컬 에스테틱을 포함한 안티에이징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AAC는 하이엔드 메드스파인 엠레드(AMRED) 청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 WHS(웰니스 하우스 서울) 오픈 라인 클러스터 오픈도 예정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엠레드(AMRED)의 운영 노하우와 시술 표준을 AACG의 글로벌 모델로 확장해 미국·중국·일본에 메디컬 에스테틱 클리닉(웰니스 센터, 가칭)을 단계적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웰니스센터에 장비·주사제·시술 프로토콜을 공급해 운영 수익과 유통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제주에 힘주는 스타벅스 “특색 경험 제공”

현무암 등 차별화된 상품 내세워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주 지역에서 만 경험할 수 있는 매장과 특화 상품을 앞세워 지역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공간·감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맞물린 전략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관광객의 96% 이상이 여행 중 카페를 방문하며, 카페 선택 기준으로는 분위기와 맛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현무암·비자림·오름 등 제주 고유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매장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그랜드조선제주점’은 호텔 루프탑에 위치한 매장으로, 책과 함께 머무는 공간 콘셉트를 적용했다. 제주 지역 최초로 ‘별다방 라거’와 각테일 메뉴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성산일출봉점, 제주한라수목원DT점 등이 ‘인중샹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JPMHC서 신약·CMO 비전 발표

12~15일 열려… 서진석 대표 참가

셀트리온은 오는 12~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6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와 이혁재 수석부사장이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JPMHC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 셀트리온은 신약 파이프라인 경쟁력, 바이오시밀러 제품 확장성,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전략이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핵심 행사인 ‘메인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가 지난해 JPMHC에서 처음 공개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그간의 신약 개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신약 개발 로드맵도 공

개한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는 단계적인 제품 출시 타임라인과 글로벌 타깃 시장 확대 전략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이혁재 수석부사장은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구축한 엔드투엔드(End-to-End) 미국 공급망 전략과 이를 통한 위탁생산(CMO)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JPM 발표를 통해 신약 개발 성과와 더불어 신규 제품 확대와 CMO 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매출 성장 곡선을 이어갈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며 “항체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스카 뷰티 디바이스’ CES 최고혁신상

한국콜마 화장품 업계 최초 수상

한국콜마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카 뷰티 디바이스’가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헬스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받으며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최고혁신상은 지난해 신설된 상으로 삼성전자가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는

한국콜마가 두 번째 수상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첫 사례를 기록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최고혁신상 수상과 함께 올해 뷰티테크 부문 혁신상 수상작 10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로 뽑혔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세계 최초 원스톱 통합 디바이스’로,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한 기기로 해결해 준다.

/이청하 기자

★★★★★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우리은행-유네스코, 사회공헌 등 민관협력

우리은행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브랜딩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과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캠코, 부산진구 ‘캠코브러리 4호점’ 재개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남부산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4호점’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 이현승 부산진구 국회의원, 구정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개소를 축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에몬스, 장학금 수여식… 20명에 1억 전달

에몬스는 지난 5일 인천 남동공단 본사에서 ‘2026 에몬스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선 총 20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경수 에몬스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동화기업, ‘동화자연마루’ 퍼스트브랜드 대상

동화기업 건강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목질 바닥재 부문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7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동화자연마루는 다양한 규격과 디자인, 기능성을 고루 갖춘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 목질 바닥재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조은정 전략마케팅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화기업

휴롬, ‘과채로움’ 브랜드 론칭

휴롬이 과일과 채소를 엄선해 큐레이션하는 ‘과채로움’ 브랜드를 론칭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

7일 휴롬에 따르면 새 브랜드 ‘과채로움’은 단순히 과채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절, 이 순간에 먹어야 할 이유’를 큐레이션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것만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다.

새로 연 과채로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엔자임 주스키트와 신선한 제철 과채 원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채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HD현대중, 시민 구한 학생들 표창… 안전가치 드높여

윤재준·문현서군에 장학금 전달
“직원 등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시민 생명을 구한 학생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 자녀인 윤재준 군(대송고 2학년)과 친구 문현서 군(화암고 2학년)의 선행을 기리고, 이들의 용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두 학생은 의식을 잃은 8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으며 HD현대중공업이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 가치와 맞닿아 있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윤재준 군과 문현서 군에게 대표이사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

생명을 구한 용기처럼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2026. 01. 06. (화)



HD현대중공업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직원 자녀 등 학생 2명을 회사로 초청해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 문현서 군, 윤재준 군, HD현대중공업 윤형민 기사).

/HD현대

게 대응한 용기를 치하했다. HD현대중공업은 두 학생을 대상으로 야드투어를 진행하고, 조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특히 윤재준 군의 아버지인 윤형민

기사(HD현대중공업 안전보건지원부, 특수구조대원)가 강사로 나선 특별 안전 교육도 마련됐다. 윤 기사는 특수구조대원으로서의 경험담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

삼성SDS 컨소,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첫 발

지반 등 주변 인프라 여건 점검

삼성SDS 컨소시엄은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공모 참여 이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전남 해남에 위치한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GPU 등)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조성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 설립위원들이 7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국가AI컴퓨팅센터 현장을 방문해 예정 부지를 점검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PC 설립, 데이터센터 설계 및 인허가, 사업 기획과 사업모델 수립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전라남도 등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

로 선정된 솔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하고, 지반조사 진행 상황과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점검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금융심사와 우선협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협약을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시아나, 14일부터 인천공항 승객 맞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출국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항공사 출범에 맞춰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0시 이후 도착편 승객은 T2로 입국하게 되며 14일 오전 7시 첫 출발편인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T2에서 탑승 수속 및 출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홍보 역량을 총동원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여행사 공식 홈페이지부터 예약 결제창, 발권 후 발송되는 여정안내서(E-TICKET)까지 항공권 예매의 모든 단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승객에게 터미널 이전 안내를 하고 있다.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한다.

또 차량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로등에 터미널 이전 안내 배너와 이동형 광고 등을 설치했다. 공항철도 이용객에는 열차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교통센터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양성문 기자 ysw@

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재준 군과 문현서 군은 지난달 28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갑자기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주변이 당황한 상황에서도 두 학생은 남성을 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약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졌고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두 학생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안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해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인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 그로스팀장 이사 조창현 △ 밸류팀장 이사 박성재 △ 경영기획팀장 이사 심민규

◆유유제약 ◇ 임원 영인사 △ 본부장(상무) 장홍석 ◇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 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 마케팅본부 홍태의

◆머니투데이 ◇ 논설위원실 <보임> △ 주필 정철근 <전보> △ 논설위원 배성민 △ 논설위원 강기택 △ 논설위원 양영권 △ 논설위원 김재현 <승진 및 전보> △ 편집담당 상무 김익태 △ 편집국장 박재범

◆파이낸셜투데이 △ 편집국장 김지성

부음

▲이선홍(합동건설 회장,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 자치도회 제23·2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33대 회장)씨 별세, 향년 81세 남편상, 이정미씨 부친상, 김중호씨 장인상 = 7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063-250-1444

▲ 권혁철씨 별세, 이혜자씨 남편상, 한수일(NH아문디자인산용 상무)씨 장인상 = 7일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9일. 031-787-1500

▲임달호씨 별세, 임기태(팀쿠키 부대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부회장)씨 부친상, 노희정씨 시부상, 임우준씨 조부상 = 7일,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발인 9일. 02-3010-2000

▲남태희씨 별세, 남경옥·남경호(GS건설 부사장)·남영미씨 부친상, 명민주씨 장인상, 박윤정·심준희씨 시부상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02-2072-2010

▲양옥진씨 별세, 신재우씨 부인상,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신승호·신병호씨 모친상, 박은숙·고민정씨 시모상 = 7일, 제주 제주시 훈길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064-744-1245

▲이정자씨 별세, 성백유(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씨 장모상 =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9일. 031-787-1500

2025년 ‘현상’이 2026년 ‘표준’ 된다



연 윤 열 의
푸드특독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의 등장과 고물가 상황에서 가치소비가 식품 업계를 강타한 해였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성분을 재설계하느라 분주한 한해였다. 2026년은 이러한 과도기적 시도들이 정교한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26년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적게 먹고 완벽하게 채우는 개념이 확산될 것이다. 단순히 단백질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장내미생물을 관리하는 차전자피, 치커리식이섬유, 저항성 전분이 첨가된 기능성 HMR(가정간편식) 유형이 성장할 것이다.

2026년도에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 지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대신 우지, 라드, 기(Ghee) 버터 등 전통적인 동물성 유지를 사용한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될 것이다. 고온조리 시 산화 안정성이 높은 동물성 지방이 튀김 및 베이커리 산업의 핵심 원료로 복귀할 것이다. 이는 클린 라벨 전략의 일

환으로 유지방 함량을 높인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유명 맛집의 RMR(레스토랑 간편식)이 급속냉동 기술과 결합해 마*컬*리, 쿠* 등에서 외식매출을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2026년에는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풀 코스를 냉동으로 구현한 세트 상품이 예상되고 CAS(Cell Alive System)와 같은 초저온 급속동결 기술이 적용되어 해동 후에도 셰프의 손맛(식감)을 99% 재현하는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2025년은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해 카카오, 올리브유, 커피 원두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PB 상품 가격 방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역시 사과, 배 등 신선식품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냉동 과일’과 ‘못나이 농산물’ 소비가 급증했다.

2026년은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원료를 상용화하는 기후 플레이션에서 AI 기반 회복 탄력성 원료 개발로 푸드테크 기술이 본격화 될 것이다. 푸드테크의 핵심기술중 AI 원료 소싱은 보아지푸드처럼 카카오 없이 특수한 발효기술로 초콜릿 향을 낸다거나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하는 등 기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원료가 대기업 제품에 더욱 확대 적용될 것이다.

ESG경영을 기반으로 단순히 ‘착한 소

비’를 넘어, 원가절감을 위한 경제적 생존 전략으로서 대체원료기술이 지속가능한 주요 산업으로 편입될 것이다.

2025년 글로벌시장은 틱톡 등 숏폼에서 스트레스 해소용 매운맛, 수면유도 음료 등 기분과 정신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성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탕후루’ 등 자극적인 단맛유행 이후 혈당 스파이크를 우려하며 애사비(애플 사이다 비니저)나 마그네슘 젤리를 챙겨 먹는 반작용 소비가 일어났다.

2026년에는 식품의 기능이 신체건강을 넘어 정신건강으로 확장되어 무드&마인드 푸드 제품군이 형성될 것이다. 집중력 강화(뉴트로픽스), 스트레스 완화(아쉬와간다, 테아닌) 등 구체적인 뇌 기능 향상을 표방하는 뉴로 뉴트리션음료와 스낵이 편의점 매대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한다. 카페인이 없는 에너지 드링크나, 진정효과가 있는 차 베이스의 RTD 음료에 주목해야 한다.

2025년이 고물가에 맞선 처절한 생존기였다면, 2026년은 푸드테크 기술과 본질의 결합을 통한 현명한 적응기가 될것이다. 푸드테크 기업은 ▲식이섬유 기반의 영양 설계 ▲전통 유지(Fat)의 과감한 사용 ▲냉동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술사, IFTA사무총장, IFSIS 식량안보연구센터장

피지컬AI 대전환 속, 사회적 논의도 중요해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AI)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새해 전략은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2026’에서도 가전, 자동차 등 산업 전체에 AI는 깊숙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스스로 판단해 직접 실행까지 옮기는 ‘에이전틱 AI’, 디지털을 넘어 물리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피지컬 AI’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AI 기술은 인간의 삶과 사회

적 문제 등을 풀어내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CES2026에서 LG전자는 사용자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집안일을 실제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품하고, 현대차도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자동화 로봇을 공개했다.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 사람을 따라다니며 보조하는 헬스케어 로봇,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자율주행, 제조공장에서 로봇이 물건을 조립하고 옮기는 산업 로봇 등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도 확대되고 있다. SNS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의적인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

지만 현실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확대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즉 AI 기술의 진화가 우리의 안전, 윤리, 일자리 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AI 기술 발전이 막히지 않도록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고위험 AI로 지정해 보다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먹거리 AI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만큼 규제 리스크 확대가 아닌 AI가 우리 산업과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8일 (음 11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신의 운세에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48년생 잔소리가 신경쇠약의 시작이니 자제. 60년생 투자의 금전 관계에서 이득이, 72년생 티끌만한 흠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 84년생 재물은 금방 날아갈 수 있으니 긴장을 해야.

37년생 직장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지런 하라. 49년생 나만의 방법을 말해줘도 소귀에 경 읽기. 61년생 교통안전에 유의, 73년생 작은 욕심을 참고 견뎌내니 모든 게 순조롭다. 85년생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 이치.

38년생 부동산계약은 속전속결보다는 살펴보고 해야. 5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아 가지 마라! 백로는 누구인가. 62년생 부지런히 움직여라. 74년생 같은 우유부단하지만 실속형. 86년생 능력은 있는데 직원들과 소통은 어렵다.

39년생 친구에게 돈 자랑하려면 적게라도 나누어줘라. 51년생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63년생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나도록 노력. 75년생 산행으로 심신에 숙달해보자. 8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

40년생 가족 싸움에 불 지피지 말 것. 52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면 행복. 64년생 겸손하면 언제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76년생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분분. 88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반식재상으로 시간이 가서 서글프다.

41년생 같은 때와 거래가 예상. 53년생 집안의 병구완 문제로 지출. 65년생 전화만 해대지 말고 직장에 충실해라. 77년생 자자는 산을 좋아하고 인자는 물을 좋아한다 했다. 89년생 가정생활이 편태롭다고 불평 말고 원인을 찾아.

42년생 손을 내미는 인간을 미워할 수도 없으니. 54년생 타고난 재주가 놀라워도 노력이 동반돼야. 66년생 인내심도 삶의 지혜이다. 78년생 소가 빨아도 깨지지 않는 그릇처럼 실력을. 90년생 본인 허물이 더 크니 뒷날하지 말 것.

43년생 고독한 생활은 우울증의 시작인데. 55년생 돈 부탁을 했더니 비가 온 뒤에 우산을 보내듯이 한다. 67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종이 떠나야. 79년생 자신의 일에 열정을. 91년생 늦은 이혼보다는 참는 것도 생활.

44년생 무심한 사랑을 만들려면 헤어져라. 56년생 할 일은 하지 않고 재물만 바라면 누가 도와줄까. 68년생 기다 보면 황금을 가져와주기도 한다. 80년생 형제로 인해 재물이 구름처럼 흩어지거나. 92년생 오후 귀인의 소식을 접한다.

45년생 배우자에게 사려가 깊게 해보라. 57년생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잘 살펴 보라. 69년생 오후 금전거래는 금물. 81년생 처음이 좋듯이 끝에 가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93년생 일을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나 손실재난에 주의.

46년생 자식들이 마음을 흔들려 대니 소란. 58년생 매매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책. 70년생 승진의 기회가 오니 겸손하자. 82년생 직원이 많으면 욕동이 섞인 이치로 따로따로일 수밖에. 94년생 책임은 잘살기 위해 애쓰도 포함.

47년생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 59년생 여행은 자제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우선. 71년생 문제가 약할 때는 자기 분야 공부라. 83년생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95년생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가 따라야만 할 것.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띠별 신수 ②



병오년에 말피는 말을 해서 무엇하랴. 한층 기분이 고조에 달했는데 술 한잔 더 먹는 격이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 운은 넘치는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 설정과 계획이 팀이 된다. 未는 午와는 반합의 관계로서 물에 우유를 탄 듯 잘 섞이니 거부감이 없다. 반합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이 어려워지는 관계라 하지만 오미합은 반합 중에서도 화합이 뛰어나 휴유증이 약하다. 반길만하다. 원숭이 띠는 무익무해한 편이나 재주 많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조심성만 챙겨도 이익이 증가한다. 닭띠들은 병오년에는 매사 신중함이 큰 도움이 된다. 사소한 이유로 대인관계에 흠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금전 관계를 조심하면 상처가 적다.

병오년에 개띠 들은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 호기를 만난 것 같은 기운의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나 건조한 땅에 열기가 더해지면 기운상 목이 마르다. 수성(水性)의 인연들을 접하는 것이 호운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들은 병오년과 무탈하다. 그러나 병오년은 놀 삼재로서 토끼띠나 닭띠와 마찬가지로 신중함이 요구된다. 취하기보단 현 상황 유지에 만족하는 모드가 팀이 된다. 이상은 전술하였듯 병오년과 각 띠와의 대략적 특성만을 따져본 것이다. 각자 사주팔자의 구성과 대운이 다르고 사주마다 심이운성과 신살 등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참고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뭇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는 마음을 살피고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반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재나 형충과해의 奇神작용이 있다면 겸손함만 유지해도 흉이 반감된다. 작정 기도도 호법신신의 도움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8		9			3		5
								1
3			1					
			5		4	8		6
5		3	8		9			
						3		2
2								
1		9			7		5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9	2	8	2	6	1	9
2	8	6	9	1	1	9	8	2
2	1	1	8	6	9	2	9	8
1	1	2	6	2	8	8	9	9
6	2	9	1	9	8	8	2	1
9	8	8	1	2	9	2	1	6
8	1	2	9	9	1	1	6	8
1	2	1	8	8	2	9	2	9
9	9	8	2	1	6	1	8	2

2	8	9	6	8	2	1	9	
6	2	9	1	8	1	9	2	8
8	1	1	9	2	9	2	6	8
2	6	1	9	9	8	2	8	1
9	8	8	2	6	1	1	9	2
1	9	2	1	2	8	8	9	6
8	2	8	1	1	6	9	1	9
1	1	2	8	9	9	6	8	2
9	9	6	8	1	2	8	2	1

서울시교육청, ‘다문화학생 통번역’ 등 적극행정 사례 공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디지털혁신·외부자원 유치 등
8건 사례, 우수 공무원 8명 선정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학생 안전 대응 시간을 단축한 사례들이 서울교육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통번역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다문화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맞춤 시스템으로 학교 안전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제약을 외부 자원 연계로 극복해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한 사례 역시 적극행정의 실질적 성과로 주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개검증과 시민의 견수령을 거쳐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심사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절차로 진행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최우수상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 교육과 조서희 장학사의 ‘다문화학생 억울함 없도록…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서비스-동부 온든통 통역지원단 운영’ 사례가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진학 자치구가족센터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8개 언어 상시 지원 인력풀을 구축하

고, 이주배경주민으로 구성된 생활통역 봉사단을 훈련·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 매뉴얼을 발간하고, 통역 이용 사안처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문화학생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했다.

우수상으로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교육행정6급 강희정 씨의 ‘현장 맞춤 디지털 혁신으로 학생 안

전 골든타임 확보, 담당자 업무 자동화 실현’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과 함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은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교육행정7급 최근영 씨의 ‘예산 절벽을 기회로 바꾸다! 교육취약학생 문·예·체 지원 10배 확대한 민·관·공·학 협력모델 구축·새꿈더하기(+)’ 사례로, 외부 자원 유치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장려상: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 공업7급 김동원(‘2025년 IoT냉난방 유지관리 사업’ 확대 추진 계획) ▲장려상: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교육행정6급 하광용(시각장애학생 점자교재·오디오북 제작 및 보급) ▲장려상: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장학사 강윤지(‘AI·에듀테크장애인교원지원단’ 구성·운영 및 접근성 자료 개발) ▲귀감상: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교육행정7급 정의일(방과후안전한돌봄및취약계층학생의복지정보통합) ▲귀감상: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교육행정6급 김동우(2025 서울학생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S-PLAN)) 등이 수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최대 5일의 포상휴가,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교육전문직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적극행정의 성과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적극행정은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현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양자·바이오 등 미래 선도 교육체계 구축” 경기도, 1.7조 규모 ‘中企 육성자금’ 공급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년사

개교 80주년, 도약 위한 전환점 될 것
양자융합학과·제약공학 신설 통해
차세대 첨단 IT·바이오 인재양성

국민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신산업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교육·연구 체제 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지난 5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학교법인 김지용 이사장과 처장단, 교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교 80주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이 지난 5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민대

년을 맞는 2026년은 국민대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

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이를 위해 양자융합대학, 바이오융합대학, 국제대학(International College) 등 신설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교육과 연구 기반을 확장한다. 특히 양자융합학과와 제약공학과 신설을 통해 차세대 첨단 IT와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총장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혁신 없이는 대학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양자·바이오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국민대만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앞서 ‘KMU Vision 2035 ED GE’를 통해 2035년 국내 8대 대학, 글로벌 300대 대학 진입과 최소 3개 분야 글로벌 Top 50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총장은 “올해는 비전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혁신의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과 실용융합인재 양성 ▲도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 총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실용주의 철학이라는 성공 김성곤 선생의 기업가정신이 오늘의 국민대를 만들었다”며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 가치를 미래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조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 2000억원, 시설자금 5000억원으로 구성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중소기업 6000억원, 소상공인 4000억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원(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특별경영자금 1200억원(재도전·재해 피해·일·가정 양립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운영된다. 시설자금은 5000억원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목적의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90%이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 0.3~2.0%p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및 추가금리 우대 기업에는 별도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글로벌 선도도시’ 비전 공유

60개국 외교사절 초청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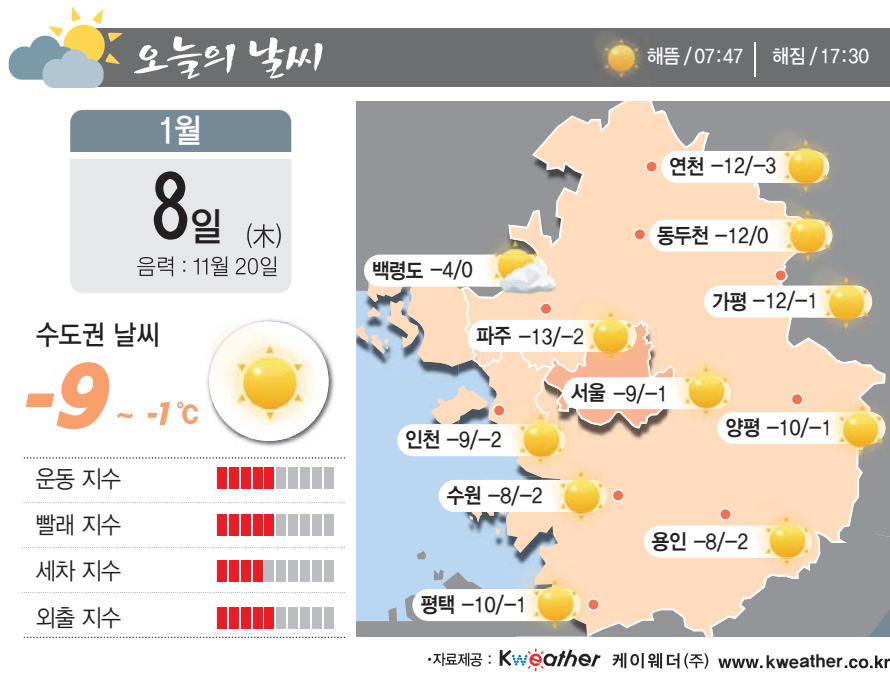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

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베네수엘라·이란·쿠바 출신 요원 추방 압박
▲美봉쇄 계속되면 베네수엘라 석유 70% 넘게 감소
…경제 붕괴할 것
/사진 뉴스시스

▲중일 갈등, 경제·공급망 전선으로…中 수출 통제에 日제조업 ‘비상’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외세 통치 안 받는다”…트럼프에 공개 반박

▲靑 “시 주석, 서해 구조물 사안 충분히 인지…세부적 언급 없었을 뿐”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성장둔화 재정악화 인구감소 3중고”



K-패션
현지화·O2O로
중시장 재공략
L1



Life

제약바이오
약가개편 앞두고
수익성 악화 우려
L2



탈모·유분 고민 잡은 50년 ‘두피과학’, 북미까지 짱 잡았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LG생활건강이 지난 2017년 3월 출시한 고급 더마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올해로 출시 10년 차를 맞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K 샴푸’ 입지를 넓힌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2023년 11월 북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북미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선 미국 내 모든 코스트코 매장에 전격 입점해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매장까지 포함하면 총 682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력 제품군은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으로 헤어 티크닝 샴푸, 미라클 인 사워 트리트먼트 등을 출시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미국 코스트코 매장 입점은 문턱이 높고 까다로운데 닥터그루트가 전체 매장으로 공급망을 확보한 것은 차별화된 제품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닥터그루트는 앞서 온라인에서 판매 호조를 기록하며 제품력과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1~7월 기준 닥터그루트의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0% 이상 증가했다.

아마존, 틱톡 등에서 닥터그루트를 주제로 한 디지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함께 호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북미 아마존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500% 이상 늘었다. 또 ‘스칼프’ 트리트먼트 제품은 카테고리 내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틱톡에서는 팔로워 1910만 명을 보유한 틱톡커 브렛맨 락의 콘텐츠가 누적 조회 수 약 1억 뷰를 기록했다.

닥터그루트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기록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브랜드 영향력을 공고히 하면서, 향후 북미 현지에서도 글로벌 소비자들 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닥터그루트’ 팝업 트럭도 열었다. 팝업 트럭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두피 진단 서비스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두피 분석을 제공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실현한 것이다. 해당 행사기간 동안 닥터그루트는 총 1679명의 방문객을 맞았고, 둘째 날에는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첫날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최대 2시간의 대기 줄이 생겼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에 시동을 걸고 있는 닥터그루트는 이미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9년 브랜드 모델로 인기 아이돌 김희철과 손나은을 발탁하고 ‘그루트송’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광고는 ‘탈모가 시작됐다면 닥터그루트로 잡아라’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연출해 소비자 눈길을 끌었다.

2017년 1월~2024년 9월 기준으로 전국 식품 소매점에서 7년 연속 ‘탈모증상케어 샴푸 및 린스 부문’ 1위를 석권했다.

탈모 기능성 샴푸 시장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년 연속 1위에 오르며 탈모 고민이 큰 남성은 물론 여성과 20대·30대 젊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미국에서 선보인 ‘닥터그루트’ 팝업 트럭.



닥터그루트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두피용’ 제품군.



닥터그루트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LG생활건강

더마 두피샴푸, 글로벌 시장서 두각
온라인·코스트코 등 북미시장 진출
북미 매출 790% 증가, 가파른 성장세
디지털콘텐츠 확산… 브랜드 영향력▲

국내서도 소비자 맞춤 두피고민 해결
470건 특허, 132건 인체적용시험 등
두피 데이터 분석·연구로 ‘품질 혁신’

두피건강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접목
지루성 두피 전용 ‘4단계 케어’ 완성

아울러 지난해 8월엔 닥터그루트 샴푸와 린스 누적 판매량이 4000만 병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를 분 단위로 환산하면 출시 후 7년간 1분에 약 11병씩 팔렸다.

닥터그루트는 LG생활건강의 50년 넘는 두피 연구가 집약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470건에 이르는 특허 기술, 132건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등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이 거듭됐다. 유전자, 미생물 연구로 확보한 4만 7000여 건의 두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백 건의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임상 기반의 혁신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자연 성분을 접목한 클리니컬 솔루션 등은 두피 환경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LG생활건강만의 노하우로 인정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엑소좀’ 2세대 제품군에는 비폴렌(벌 화분) 엑소좀 4만 개, 유산균 발효 용해물 1억 개 등을 조합한 바이오엑소좀 기술이 적용됐다. 샴푸·컨디셔너·트리트먼트·토닉 등 4종으로 구성됐고, 지성, 건성 등 두피 유형에 상관없이 두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샴푸, 컨디셔너, 토닉을 3단계로 사용하면 두피 각질, 과다 유분, 건조함, 가려움, 외부 자극에 의한 붉은 기 등 5가지 두피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바이오엑소좀 샴푸는 드라이 열, 적외선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두피의 방어력을 높여 탈모 고민을 관리한다.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군에는 특허 기술 ‘이.디.티 릴리프 테크놀로지’를 활용했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지루성 두피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효능을 확인했다. 샴푸 1회 사용만으로 ▲유분 과다 ▲가려움 ▲두피 장벽 ▲수분 등의 요소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샴푸 사용 중만 2주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됐고, 샴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두피 장벽이 강화됐다.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들은 유분 과다, 비듬, 각질, 건조에 의한 가려움, 냄새 등 지루성 두피로 인한 5가지 복합 문제에 초점을 맞춰 총 4단계에 걸친 두피 관리법을 완성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분 제형의 ‘10초 워터 스케일러’로 두피에 있는 피지를 불려서 제거한 뒤,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가려움이 심한 부위나 붉은기가 남은 두피에 ‘지루성 두피용 스팟 젤’은 바르면 빠른 진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닥터그루트의 탁월한 품질에 K트렌드를 접목한 마케팅이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두피 진단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력을 바탕으로 LG생활건강이 추구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은퇴 후 ‘진로 고민’ 황재균 “지도자 생각 없다…야구 예능도 거절”
▲김상식호 베트남, 요르단 꺾고 U-23 아시안컵 첫 승
/사진 뉴시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고교 후배들과 함께 야구 클리닉
▲프로야구 키움, 2군 수비코치로 유재신 코치 영입

▲K리그1 제주, 권창훈 이어 박창준 영입…김승섭 대체
▲알제리·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 진출로 대진 완성


SK telecom


마음은 이미 로밍 중

T 로밍 baro 요금제 하나면

 다양한 멤버십 혜택
클럽 T 로밍

 에이닷 전화로
baro 음성통화 무료

 온 가족 로밍 해결
가족로밍

 0청년 고객님
로밍 50% 할인

자세히 보기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 기본 제공 | 가족로밍 요금제는 대표 회선이 추가 가입 (3,000원)하면 최대 4명의 가족과 공유 가능 (단 SK텔레콤 가족 결합 상품 가입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로 증명 필수) | 에이닷전화로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 (한국 및 방문 국가의 발신제외) | 클럽 T 로밍 혜택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 가능 | 로밍 50% 할인은 baro 요금제 가입 후 로밍 데이터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0청년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에만 제공 | 더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 에이닷에게 [baro 요금제]를 물어보세요.

